

기획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4차회의

일시: 2011년 9월 26일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정전 대란’ 지역상황 보도 미흡... 정치기사 너무 많다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 교수·위원장)



‘반값 등록금 문제’ 시들  
정부정책 맞춰 분석·취재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장)



테트라포드 유실 신속 보도  
정부 보완공사... 역할 컸다

경 훈 ((사)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지방분권·수도권 과밀 해결  
구체적 전략 취재를

임선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문용어 사용할 땐  
꼭 뜻풀이 붙여주길

김병인 (서영대학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



민주당에 많은 지면 할애  
균형잡힌 보도 필요

▲이철갑=지난 7월 18일 3차회의 후 두 달여 만에 모이게 됐다. 광주일보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자위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린다.

▲조연술=광주일보가 지난 2달간의 지면에서 돋보였던 점은 1면 톱기사와 함께 3면 해설기사가 실리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이다. 특히 8월 9일 1면과 3면에 집중 보도됐던 테트라포드 유실 문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보도 이후 정부에서 100톤급 테트라포드로 보완공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광주일보 기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

9월 16일 경제면에서는 ‘채소·과일 값 30% 내렸다’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어디까지나 수도권 지역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지역의 상황은 아니다. 광주일보는 지방신문이다. 지역 도매시장의 현황을 파악·분석해서 기사화했다 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경 훈=서울 시장 보물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언론이 후보자들을 집중조명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역할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 시장의 생각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서울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문제는 서울 시장이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또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을 해결할 구체적인 전략도 취재해 보면 좋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이 균형있는 보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다양한 정당의 소식을 균형있게 접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들의 지역 풀뿌리 조직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달라.

▲임선숙=광주일보는 지역신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건, 정보 등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분석해서 보도해야 한다. 최근 정전 사태 발생시 광주에서도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 지역의 예비 전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기사가 없어 아쉬웠다. 또 ‘블랙아웃’이라는 용어정리도 아쉬웠다. 앞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 전문용어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정리를 부탁한다.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출범했다고 한다. 이 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이들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뤄달라.

▲김병인=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균형잡힌 보도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당의 광주·전남 30년 독재가 길어지다 보니 역기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겠다.

9월 23일자 1면 ‘담양 공무원도 모르는 남도갯길’ 기사는 너무 좋았다. 전국적인 걷기 열풍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년 동안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지리산 둘레길과 제주 올레길에 버금가는 지역의 관광자원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안재오=국민의 운동 욕구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아마 체육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광주일보가 지역의 스포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구와 축구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아마추어나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전국체육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와 겹치는 시점이다. 전국체전 고정란을 만들어 이 지역 선수들의 활약을 지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

최근 U대회 경기장을 놓고 말이 많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너무 입지 선정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U대회 경기장은 엘리트체육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앞으로 U대회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기사화해달라.

▲조미옥=광주일보가 최근 들어 좋아진 점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기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인문학 강좌’ 등은 독자들에게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강좌들이 평일 낮 시간에 편성되다 보니 직장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들도 소개해줬으면 한다.

사회면에 ‘입사지원서 키 부모학적 왜 적느냐’라는 기사는 인권 침해를 잘 다룬 기사였다. 입사지원서에 키, 부모학적 등을 적는 문제가 사소하게 비춰지지만 개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짚어줬다. 하지만, ‘광주서 최고위직 일고 3인방’ 기사는 조금 아쉬웠다. 앞 기사가 인권을 생각했다면 이 기사는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묘숙=8월 3일자 ‘문화전당 집중호우 못 버티다’ 기사가 좋았다. 다행히도 이 지역에 큰 호우 피해는 없었지만 이 기사를 통해 앞으로의 재해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가장 큰 사업의 하나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건설현장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

7~8월 유난히도 특급호텔 기사들이 많았다. 광주 특급호텔의 상황이 광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기사화했다. 호텔 객실이 비었다는 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사화해달라. 경제면 기사는 소비자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접근했으면 한다.

기사 내용과 제목이 맞지 않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 9월 21일자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수출된다’ 기사를 보면 내용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오 온 것이다. 단순 내용을 과장되게 보도한 부분이 있다.

▲김현석=1면 톱기사는 그날 신문의 얼굴이다. 9월 1일부터 23일까지 15회 걸간던 1면 톱기사를 분석한 결과 5번이 정지기사였다. 독자들은 최근 정지라는 말만 나와도 무관심을 넘어 열증을 느낀다. 반면 9월 21일 공공미 기사와 개통 앞둔 KTX 타보니, 남도갯길 기사는 독자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기사였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전관예우에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부조리와 부패를 낳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 속한다. 9월 20일 7면 ‘정말 웃기는 교과부’ 기사에 정부가 발표한 43개 구조조정 대학 중 무려 9개 대학이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것은 고위 관료 출신을 총장으로 모시는 전관예우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전남의 20여개 4년제 대학의 전·현직 총장들의 이력을 추적해 심층보도에 썼으면 한다.

7월 22일 1면 톱에 ‘화순군의회 막장 난동’이라는 제목이 나왔다. ‘막장’은 속어일 뿐더러 특정업체 종사자들에게 대한 비하적 발언이다. 신문에서 쓰는 용어가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용어선정에 신중해달라.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



전국체전 선수 활약상  
아마추어 체육 관심 부탁

조미옥 (나주 봉황중 교사)



다양한 인문학 접근 좋아  
직장인 위한 강좌 소개도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특급호텔 등 경제기사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광주·전남 4년제 대학총장  
이력 추적 심층보도 필요

▲이철갑=‘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조금 시들해진 것 같다. 9월 1일자 ‘성취위주 장학금 빈곤층 소외’라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내용에는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장학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다. 하지만, 학부모는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이 내려가질 바란다. 또한, 장학금 문제도 기사에서 보듯 현재 대학들의 장학금 지급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다. 뜻사는 사람 것을 뺏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향이 있다.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부의 정책과 맞춰 취재해줬으면 좋겠다. /정리=김영민기자 kki@-/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column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나주혁신도시 전문', '동명공인중개사', '나라공인중개사', '중앙공인중개사', '금당 공인중개사', '기은 부동산', and '대인동심일부동산'. Each column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